朝鮮日報
朝刊

社說

棉花共販과 繰棉業의 認可制

繰棉業者反對運動

一

黃海道에잇는 二百餘 繰棉業者들은 繰棉業을 한에 一一히 道知事의 認可를 要求한다 하야 不日 沙里院에 全繰棉業者大會를 열고 이의 反對運動을 이르키리라 한다。棉花의 共同販賣制가 이미 小生產者를 壓迫하는것은 勿論이어니와 繰棉業者까지 一一히 道知事의 認可를 要하는것은 小企業者의 發達을 阻害하는것으로서 이에 反對치안을수업다。

二

첫재 共販規定의 實況을보면 棉花를 栽培한者는 이것을 自由로 販賣할수가업고 當局이 指定하는 商人에게、當局이 任命한 技手의 品質鑑定미테、當局의 指定한 價格으로 販賣된다。그러므로 小生產業者가 그商人、그價格에 販賣하고싶지 안은 意思가 잇다 할지라도 이것을 안할自由를 가지지 못하얏으니 이것은 實質의 半强制的 行爲라 안흘수 업다。當局은 或은 이가튼 半强制的 賣買가 어리석은 農民의 브로카들에의 壟斷을 防止한다 하지만、賣買의 獨占權을 가진 사람이 每樣 有利한 立場에 서는것은 常識으로도 理解할수가 잇거니와 事實 自由로 販賣하야 利를 보앗다가 法規에 어그러젓다 하야 罰金에處分된者 만흔것을 보면 共同販賣價格이 如何히 自由販賣의價格보다 低價임을 알수잇다。

三

그런데 萬一 繰棉業까지 一一히 道知事의 認可를 엇어야한다면 棉花는 栽培者가 아니면 自作自給的으로 繰棉하는者는 하나도업서지고 말것이다。그러치안해도 棉花의 共同販賣때문에 小數의 需用者는 이것을 求할수가 업서서 不得已 繰棉業者로부터 高價의 繰棉을 買受치안으면 안되게되엇거니와、萬一 繰棉業者까지 制限하야 이것을 小數로한다면 小企業者의 驅逐될것은 勿論이어니와、이로써 小量의 家庭用 繰棉者는 하나도 업서질지니、現下 農村에서 가장困難해진 原因의 하나가 生產品은 廉價로팔고、消費品은 高價로 삼에 잇다할진대 繰棉業者의 制限은 이것을 爲하야 一層 助長할지니 農村을 爲하야 一大問題라 안흘수 업다。

四

當局은 或은 棉花뿐아니라 繭、肥料、酒類 等 統制上 不得已한일이라 할지나、統制나 무엇이나 民衆을爲해잇슬일이어늘 共同販賣로서 生產者를 不利케하고、企業者의 認可制로서 小企業及 小營業者의 家庭을 經濟的 不利에 導함은 適當한 政策이아니다。當局은 마당히、棉花、繭、肥料、酒類等의 販賣統制를 撤廢하야 民衆의 利益을 圖하라。

蘇의「報告書」發表는 日本輿論分裂策?

駐露、滿大使의 報告로 鳩首協議

取消、陳謝要求키로決定

【電通東京電話】蘇聯政府怪文書發表問題에 對하야 外務省에서는 廣田外相以下 局部長間에 鳩首對策을考究하고잇는데 同怪文書發表에關한 太田駐蘇、菱刈駐滿兩大使로부터의 情報는 十一日中에 外務省에到達되엿는데 이에對하야 硏究한結果 蘇聯政府의 本事件에關한意圖는 最近의蘇聯의對日政策인 日本內輿論分裂策의 一方法인것이 明瞭케되엿슴으로 本事件을 突發的事件으로 處理함에는 너머나 重大하다하야 本問題의解決方法에 對하야는다시 愼重한態度를 取하고 그우에 抗議라든지 取消要求라든지를 하기로되엿다 他面 蘇聯側의 意圖가 如斯히 陰險한以上 今後의 日蘇國交에 對하야는 嚴然한 態度로서 臨할方針이다

【聯合東京電話】蘇聯邦이 北滿에서의 政治的陰謀라는것을「타스」通信으로하여금 暴露케하고 日本의 地位를 故意로 中傷하려는 行爲에 對한 對策을 講코저 外務省에서 軍部및內務省側과 連絡協議한結果 政府의 方針을 左와如히 決定하얏다

一、蘇聯側이 今回突然 日本을 中傷하는 行爲를 取한것은 全然 蘇聯政府가 內外의 事態의 眞相을 認識치못함에 基한것인데 今回의 蘇聯邦政府의 行爲는 日本國家로서의 感情을 傷하는것인故로 이 取消陳謝를 要求하고 日本의 蒙한 國際的 外交의 損失을 回復할것이다

一、依然 蘇聯邦에서 日本側要求에 應치안는時는 一方的으로 右目的을 達키爲하야 斷乎한手段을 取할것이다

一、東京에在한「타스」通信은 蘇聯邦政府의 政策에 基한것인故로 外務省으로서는 이에對하야 取할 態度는 決定치안코 內務省에서 國內問題로서 取扱할것

萬若 右通信員에 違法行爲가 잇스면 處分할터이나 不然한 時는 何等의手段도 取치안을것이다

宇垣總督 全北에서全南에

【光州】南鮮地方視察中의 宇垣總督一行은 高全北知事의 案內로 十一日午后三時五十分 淳昌에 到着、郡廳에서 水害狀況과 陳情을 聽取하고 淳昌川의 水害地를 視察 光州로부터 온 矢島全南知事一行과 合流하야 五時十分、淳昌을 出發하야 木浦地方事情을 聽取한後 六時二十分 光州에 到着하야 鐵道旅館에 들엇다

石油國策確立費

來年度豫算에 計上

商工省의 根本方針決定

【電通東京電話】石油國策確立의 根本問題解決에 對하야 商工省은 關係官廳인 陸、海、大藏、拓務、外務各省에 諮하야 去六月以來 此等各廳의 專門家로 組織한 液體燃料國策審議會에서 技術的見地에서 目下 審議案의 審議를 進行하고잇다 現在 그一部에 關係한 諸經費를 十年度豫算에 新規要求로 計上되여 마침내 具體化되려고한다 卽 根本方針으로서는 日本에 資源이 적은 原油輸入을 確保하고 또 製油施設의 保護助成을 目的으로한것으로 成案을 어드면 來議會에 關係法規를 提出키爲하야 準備를 急히하고잇는바 商工省의 方針은 大要 左와如하다

一、石油類의 輸入에 對하여는 許可制를 公布함

一、一般資格을 所有한者(現在 日本에서 製油工場을 所有하고 製油工業을 經營하고잇는者)에 限하야 輸入을 許可할것

一、製油所의 建設擴張은 國家의 許可를 必要로할것

一、原油輸入에 對하여는 無稅 又는 低率關稅를 賦課하고 製油輸入에 關하여는 高率關稅를 賦課할것

一、英米資本系統으로부터 原油의 輸入方法을 確保키爲하야 蘇聯「루마니아」其他로부터 原油의 輸入을 圖할것

一、許可會社에는 一定量의 原油貯藏義務를 負擔케할것、

油附藏義務를 負擔케할것、右關稅引上其他 諸方策도 現在와가티 日本의 石油會社가 冷淡하게 對하면 將來는 採油製油를 모도 日石을 中心으로 現存의 諸會社의 合同을 圖하야 大石油會社를 創立하기로 하고 此를 半官半民會社로 할것이냐에 對하여는 아직 未定이다

農村恒久策으로 負擔輕減을提言

農相으로부터

【聯合東京電話】後藤農相은 五相會議의 結果 如何에 不拘하고 未久에 擡頭할것으로 豫想되는 豫算을 中心으로하는 經濟國策會議에잇어서 農村經濟의 恒久的基本對策에 對하야 重大提言을 하기로 決議하고 이미 事務當局에 調査를 命하는 同時에 一切의 準備를 進하고잇다 그것은 더질수업는 負擔에 悶惱되는 高價와 通貨한 農村에서 가장 希望하는 現下 農村에서 目下 시급하게 解決될 減收、移出米의 許可制 되는것과 米價를 引上함과 如한것은 正租貯藏等의 臨時的 施設에 依한것이니 오늘로 負擔의 輕減에 依한 生產費의 低下에잇다 卽 農村經濟를 基礎로하야 新財政計劃을 樹立하야 稅制의 全面的整理를 斷行하야 過重한 公租公課의 負擔을 輕減하고 다시 肥料價格의 引下를 行하야 米를 始하야 農產物의 生產費를 되도록 輕減하야 大衆農民이 安心코 生業에 從事할수잇도록 하려하는것이다

米政府新公債賣出

【電通華盛頓十一日發】米國政府에서는 自由公債償還에 伴하야 發行되는 新公債五億弗을 一條百弗에 對하야 百一弗半의 價格으로써 賣出하얏다 右는 政府의 政策運用資金에 繰入될 豫定인데 消息通은 이 新公債發行으로써 政府가 當分의 間 通貨膨脹等을 行하지 안코 安全한 通貨政策을 持續코저 決意한것을 示한 事實로 解釋된다

倫敦會議後 世界經濟動向

【三】 徐椿

市場의 攻防戰

經濟的國家主義가 實際로 나타나는 方面을 말하면 그것은 列强의 市場攻防戰이라는 一言으로 덥흘수가잇다。그러나 實際로 나타나는 列强의 모든 經濟政策은 다、旣得한 市場에 對한 他國의 侵入을 防止하려는 意圖로부터 나온 防禦策이 아니면、아직도 主人이 업는、잇서도 힘이 弱한 主人의 市場을 奪取하려는 意圖로부터 나온 攻擊策이다。例하면、關稅引上은 旣得市場의 擁護策이오、商品덤핑又는 新市場에 積極的輸出增進策은 新市場의 獲得策이오、뿔럭의 成成運動은 一面으로보면 旣得市場의 擁護策이오、他一面으로보면 新市場의 獲得策이다。이것을 簡單히 말하면 關稅는 防禦專門의 武器요、덤핑 그他의 新市場擴張策은 攻擊專門의 武器요、뿔럭形成運動은 攻守兼用의 武器다。이러케 보아 오면 倫敦會議의 失敗는 列强의 經濟國家主義로의 轉換을 必然的으로 結果한 것인데、그 經濟國家主義를 展開하는 過程에 잇서서는 關稅引上이나 덤핑이나 뿔럭形成이나 依한 市場爭奪戰이나 하야 여러가지 問題가 展開되나 그要는 列强의 市場攻防戰이라는 一言으로 덥흘수가 잇슴을 알것이다。

◇

여기서 나는 列强이라는 말을 썻다。世界經濟라는 말에 對한 一部의 誤解를 풀기 爲해서는「列强」이라는말의 意味를 說明하는것이 捷徑일것으로 생각된다。따라서 이말에 對하야 若干의 說明을 부처기로한다。우리는 어려슬때로부터 萬國旗를 달때에 萬國旗라고 하고、世界라고 해도 關係치 안흘것을 世界라고「世界」라고하면 나라의 數가 만흔줄로 誤解한다。特히 最近에 와서는 國際聯盟總會에 五十五個國代表가 參席햇느니、倫敦經濟會議에 六十六個國이 參加햇느니 하는 報道를 들으면 어느外國으로「世界經濟」라는말을 들으면 적어도 五十國以上을 聯想하게된다。그러나 一切理由를 省略하고 簡單히 要領만 들어말하면 이世界에 나라다운 나라는 日英米佛獨伊露의 七國이다。그럼으로 말은 世界經濟라고하나 그實은 이七國經濟에 關한것이라는 點을 이저서는 안된다。

◇

다음 攻防戰의 對象이되는 市場이란 무엇을 意味하는가 換言하면 目的物이되는 市場이 무엇이냐하면 그것은 두가지 意味를 가지엇다。그一은 原料、食糧을 獲得하기爲한 市場이오、又一은 製品(工業品)을 팔기爲한 市場이다。前者는 말하면 列强에 對하야 原料及食糧의 供給地요、後者는 말하면 列强의 工業品의 需要地이다。다시한번 말로 表해보면 前者는 原料食糧의 生產地요、後者는 製品의 消費地이다。그런데 事實에 잇어서는 兩種市場이 따로 잇는것이 아니라、한 地域으로서 原料生產과 製品消費를 兼한 市場이 만타。例하면 印度는 英國에 對하야 原料食糧의 供給地인 同時에 英國製品의 需要地이다。

◇

以上을 要言하면 倫敦會議의 失敗로 列强은 다시 經濟國家主義로 도라가고、그 結果로 市場攻防戰이 展開된다는 말이니、市場의 攻防에 잇다고하면、經濟國策이 오르지 列强의 原料、食糧의 供給으로보나、製品의 需要로보나、가장價値가 잇는 地域을 爭奪하야 列强의 爭奪의 標的이될것은 勿論이다。(續)

羅馬尼亞 皇帝暗殺企圖

皇帝通過後의 列車를 一齊射擊

僥倖히 旅客은 別無事故

【電通부가레스트十一日發】「루一마니아」皇帝「카르로」陛下 暗殺을 目的한것이라고 解釋되는 列車射擊이 十一日「랄고」驛附近에서 이러낫다「카르로」陛下가 陸軍大演習으로부터 還幸의 途中 特別列車가「랄고」驛을 通過後 五分間을 經하야서 또 一連의 急行列車가 同驛을 通過할時에 그第二列車로 向하야 行한것으로 激烈한「라이플」銃의 一齊射擊이 잇섯스나 幸히 旅客車에는 命中치안어 死傷者는 업섯다

『暗殺計劃은 업다』

同國政府는 否認

【電通伯林十一日發】「루一마니아」皇帝가 大演習으로부터 還幸하든 途中 暗殺計劃이 잇섯다는 報가 잇섯스나「루마니아」政府는 通信社「라이스」通信을 通하야 右計劃은 업섯다고 否認하엿다

「후一드」號乘組員 反亂?

【電通倫敦十日發】世界一의 精銳艦을 자랑하는 英國大戰艦「후一드」號(四二、一〇〇噸)의 乘組員等이 反亂을 起하야 極力鎭靜에 努力하고잇다는 報道가 잇서 各方面에 衝動을 與하고잇는데 右에 關하야「쉬•몬쓰」英海軍大將은 記者에게 左와如히 語하야 此報道를 否定하고잇다

如斯한 事件이 잇섯다는것은 何等 報告업서 事實이라고 밋어지지 안는다 그리고 萬若 右報道가 事實이면 三年前「인바•고돈」에서의 英艦隊의 反亂事件以來의 大事件으로 英海軍의 軍規도 衰退되엿다고 안할수 업다

不服從水兵 別艦에 監禁

【電通포츠마우스十日發】英의 大戰鬪艦「후一드」號(四一、一〇〇噸)乘組員의 不服從事件에 關하야는 直接의 責任者인 司令官도 海軍當局「도이를」否定하고 眞相의 發表를 避하고잇는데 當地의 海軍及一般人間에 傳한바 消息에 依하면 同艦은 丁下北海에 行하고잇는 演習에 參加코저 同方面에 向하든 途中 乘組水兵의 一部에 不服從事件이 起하야 當局은 그擴大를 두려워하야 不服從水兵은 同行의 數隻에 分乘監禁하야 演習에 參加한 「후一드」號에 對하야는 卽時 當港에 歸還하얏다한다

獨의 侵略陰謀說

『某强國과 開戰時 瑞西通過攻入』

獨逸政府는 否定

【聯合伯林十一日發】最近 英國의 一新聞이 獨逸과 歐羅巴의 某强國과 戰端을 開한時는 瑞西를 通過하야 同國에 攻入할 秘密計劃을 有하는中이라는 記事가 揭載되고 또 그 報道는 널니 歐羅巴의 諸新聞에 轉載되엿슴으로 이에 對하야 獨逸政府는 十一日 左와如한 聲明을 發表하고 右報道는 全然 事實無根임을 强調하얏다

英國新聞紙의 報道는 全然 根據업는것이다 이러한 記事를 揭載한것은 獨逸政府의 遺憾으로하는바이다 그리고 歐洲諸國間의 新聞이 말이 이것처럼 傳한것은 如斯한 報道의 目的은 明白히 平和를 念으로하는 獨逸의 眞意에 疑心을 품게 하고 同時에 獨逸의 平等權要求를 蹂躪하려는것이다

一事一言

長白山人

스마일링大會

甲子幼稚園主催 本社學藝部後援인 스마일링大會는 明十三日 午後七時 長谷川町公會堂에서 開催키로 되엿다。宇宙에 가장 아름다운것이 人類요 人類에 가장 아름다운 것은 兒童이다。그리고 兒童의 가장 아름다운것이 우슴이다。

노래、우슴——이것은 宇宙의 아름다운것中에 아름다운 것이다。最高의 藝術이다。天下의 兒童으로 하여곰 웃고 놀게하라。人類의 幸福이 여기서 비롯한다。天眞爛漫한 아기네들이 울지아니하면 안될일、낫츨 찌푸리지아니하면 안될일이 잇스면 안된다。自然스럽고 愉快한 台에——그에는 우리 人類의 가장 아름다운 가삼이 잇다。

天下의 아기네에게 웃는 生活을 주고십다。

幼稚園

兒童을 手工品材料를 삼고십지아니하다。幼稚園의 兒童을 商品삼고십지 아니하다。「無邪氣」그대로 재주 부리는 幼稚園은 兒童의 健全한 發育을 害한다。따라서 人工的인것을 마다하고 自然스럽고 愉快하게 兒童을 배우고 놀게하고 십다。

幼稚園으로서 기 家庭에서 자라나는 兒童의 것같은 것이 되게하고 십다。

歐米列强의 對日共同戰線

◇駐米中國公使力說

【聯合紐育十一日發】駐米新任中國公使施肇基氏는 中國의 對日關係와 中米兩國民의 永久親善을 企圖하기爲하야 列國特히 英國의 對日冷淡한것을 促하고 日本에 對하야 列國이 共同戰線을 取하라고하야 左와如히 述하엿다

滿洲問題는 全世界에 對하야 極히 重大하다 目下 列國은 中國에 對하야 自由放任政策을 取하고잇스나 特히 英國의 態度는 中國에 잇서 多大한 利權을 가진 列國에 비추어 安定된 態度가 아니다 列國은 將來上海에 關하야 國際會議를 開催할것은 日本의 態度에 依하야 絶對로 必要하다 日本에 對하야 列國이 共同戰線을 取하지 아니하면 日本에 對抗할수업슬것이다

中國共產軍

渠縣營山占領

【電通漢口十二日發】中國側 某所消息에 依하면 四川省北部의 共產軍은 最近 그 活動이 活潑하게되야 劉湘軍의 第二十師는 共產軍에게 擊破되고 四川省北方 渠縣營山의 兩縣城은 共產軍의 手中에 들어갓는데 다시 南下할 形勢이다

日印當業者會議 意見이 全然疎隔

次回는 英側覺書를 基礎로 討議

英側覺書는 印度本位?

【電通심라十一日發】昨十日 日印當業者會議는 雙方의 意見이 全然 阻隔되엿스므로 散會되後에 再次 열게될 可望이 업게된 狀態에 잇다

【電通심라十一日發】十一日朝 當地新聞은 一齊히 會議의 前途를 悲觀하는 記事를 揭載하야『會商은 드되어 決裂되엿다』『會議는 全然 停頓되엿다』는等의 세식한 報道를 하고잇는데 此에 對하여는 會議의 內容을 知悉치 못하는 英國側은 狼狽하는 模樣이다

【電通심라十一日發】第三次 日英當業者會議는 十一日午前 十一時開會 前回英國의 提議에 依하야 英國은 日本商品의 進出로因하야 多大한 苦痛을 바다 緩和策을 考慮하여 주기를 바란다는 希望이 잇섯슴으로 이問題는 印度에 關한것이나 日印民間會議는 目下見解의 相違를 招來하야 相互考慮中임으로 目下 日本으로서는 아모것도 말할것이 업다고 答한바「클레아•라스」氏는 日印間의 協議가 順調로 進行되지안는것은 日英印三國의 共同利益을 目的으로 한 이會議를 爲하야 極히 不幸한일이다 英國도 此에 對하야 責任을 가진것이라고 생각한다 故로 어떠케 하여서라도 三國이 圓滿한 妥協할 方途를 發見하고십다 그러하려면 먼저 英國이 妥協案을 作成하야 夾回부터 此를 基礎로하야 討議를 進行하려하는바 日本의 意向이 如何하냐 提議하얏다 日本側도 此에 對하야 異議가업다고 答하야 會議는 約四十分으로 終了되엿다 아 會議의 結果에 基하야 英國側은 十一日中에 覺書를 作成할것인바 大略 十二日頃에는 再次 日印當業者會談이 開催되리라고 豫期된다

【電通심라十一日發】英國當業者代表가 日印間의 意見對立으로 因하야 會議가 停頓되고잇는데 對하야 會議進行에 關한 覺書를 提案하려고 提言하엿슴으로 再次 再開될 希望이 보이지안는 日印當業者會議前途에 一道의 曙光을 던젓다

英代表歸國準備

日本과의 會議도 期待難望

【電通심라十一日發】英國어 完全히 暗礁에 올라서게되여 日印會商의 協定에 出馬하게된 英國側에 對하야는 如左한 觀測을 하고잇다

即 英國代表는 來二十八日에 出帆하는「콘데•로쏘」號에 乘船帰國(?)의 準備를 하고 會議의 進行如何에 不拘하고 歸國하기로 決定된 模樣으로 日印會商의 決裂에 따라 이점에서 日印會商의 不調의 結果에 基하야 本國의 方針을 決定하야 英國은 日英間의 會議도 若干 印度의 態度를 보아서 하기로 하엿슴으로 日印會商이 決裂되면 印度와의 會議도 아마 失敗하고 말것이라한다

『씸라』會商決裂狀態

本과의 交涉點을 發見하기도 困難한 下의 狀態로는 短時日間에 希望이 이업고 이以上 印度에 오래 滯在할수업는 立場에 잇다 따라서 此際 吾等의 活動은 失敗가 豫想되는 것을 口實로 速히 歸國하려고 努力하고잇다는 것과 吾等으로서 會談을 繼續할 수 잇스며 事實上 暗礁에 올랏다고 하는것으로 볼수잇다

若槻民政總裁

倫敦條約辯明

統帥權干犯아니다

【聯合東京電話】民政黨의 若槻總裁는 倫敦條約締結에 對하야 世間一般에 統帥權干犯을 云謂하고 非難하야 온것에 關하야 東海大會에서 自己의 一身을 辯明할 機會를 엇으랴고 當時의 事情에 對하야 言及하엿는데 그時期는 十五日의 東京日本俱樂部에서 열리는 民政黨幹部懇談會에서 할터이어든바 十日부터 開催되는 東海十一州民政黨大會에 西下하야 名古屋市의 名古屋「호텔」에 開催되는 歡迎會席上에서「론돈」條約締結의 實情을 闡明하야 鈴木政友會總裁에게 一矢를 酬하엿다 그리고 그 辯明의 要旨는 如左하다

「론돈」條約에 關하야는 自己自身 關係한일이 모도 今日과 가티 그다지 當時의 實情에 對하야 알리지안엇스나 國內의 一部에서 誤解非難의 聲이 잇고 野黨政友會의 東海大會에서는 鈴木總裁가 一言하엿스므로 나는 말하지아니할수업다 條約締結의 當時에 나는 不得已「론돈」條約의 目的이 本三大原則에 依한 條約을 締結하는 것이 一九三六年까지는 效力을 失하고 條約을 繼續하는 것이 아님은 勿論이다 自己도 日本全權으로 代表하야 分明히 말하야 두엇다 日本은 條約에 決定된 滿足하는것이 아니다 오즉 條約期限이 一九三五年까지는 贊成한것이니 一九三五年에는 再次 會議가 開催될것이요 그때 日本은 自主的 立場에서 主張을 言明할것이다 內容을 分한 軍備의 充實을 圖하고 當時에 이를 發表하야 統帥權에 對한 關係를 速히 하얏다

야는 自己의 責任에 對하야 海軍大臣 海軍次官、軍令部長、軍參議官等이 熱議를 거듭한後 閣議에서 請訓에 對한 決定한것인 以上 相當한 計劃이 잇지안으면 안된다 또 統帥權의 干犯等이라는것은 絶對로 업다고 言明하고 다시 鈴木總裁가 론돈會議의 結果 第二次補充計劃을 必要로하기에 이르럿다는데 對하야는 日本의 自主的 外交에 依한 國際聯盟脫退後의 名譽의 獨立에 依하야 對外關係는 不安한 國의 建艦競爭에 依하야 世界各國의 締結에 依한것이 아니라 第二次補充計劃은 「론돈」條約의 結果가 아니다 自然이야 對應치 안으면 안되는 必要에서 이러한 것이다

辭令

高等科任官俸給遞度에 關한 總督府理事官敎護에 關한 官制改正은 드되어 十二日 公布施行되엿는데 이에 依하야 十二日午後 左와如히 一名의 缺員되여로 發令되엿다(?)

總督府圖書課 福江 鹿好
財務局會計課 (?)
總督府屬兼專賣局副事務官 成瀨仁喜太
總督府鐵道局書記 河村 修
內務局地方課 河村 雅亮
總督府屬
會計課
人事課

任總督府道技師(四等) 彭 澤 亮
任總督府道理事官(七等) 金 堅
慶尙南道在勤을命함 奏 (?)
全羅北道在勤을命함
任總督府道技師(平北) 庄田 寅次郞
總督府道技師(慶尙) 近藤 喜久治
忠淸南道在勤을命함
總督府檢事 吳 潮 (?)
平安北道在勤을命함
朝鮮總督府產業技師 彭 澤 亮
依願免本職 (?)

任總督府理事官(七等) 秦 由 平
任總督府道理事官(七等)
補京畿道(?) 金 一 (?)
任總督府判事(七等)
補光州地方法院判事 (?)
補京城府(?)務課長 (?)
水原郡守 丸山 齋藤
官原 一室 (?)
補平壤地方法院判事
補平壤府成川(?)郡屬 白 (?)

人事·集會

▲原邦道氏(大藏預金部長兼金融課長) 十一日夜入京朝鮮屋에
▲難波幸一氏(九州帝大敎授) 十一日同上
▲金鉤秀氏(平壤商工會議所會頭) 靜岡茶業組合一行十三名과 共히 十一日入京 天眞樓에
▲林茂樹氏(殖銀理事) 渡東中이든바 十二日朝歸京
▲안스•유자氏(伯林硏究部長) 十二日朝北行
▲山田良三氏(城大總長) 十一日午後五時歸京
▲服部宇之吉博士 十一日午後五時入京
▲미본氏(世界女子基督靑年會總務) 十二日夜九時入京
▲라이언氏(米國女子基督靑年聯合會外國事業部幹事) 同上
▲朴興植氏(鮮一紙物株式會社長) 今夜金剛山에
▲高秉哲氏(平北道議員) 昨夜退京
▲李炳烈氏(新義州商工會議所理事) 學院事務協議次 十二日入京

大京城候補地선보기巡禮【十一】

예로부터 쓸쓸한 無學재넘어 弘濟里

◇주러가는이떡집과색주가집

인절미와火葬場이名物

【무학재(無學峴)넘어홍제리(弘濟里)도 대경성의 예정구역안에들기는하것스나 그 발전은미미하다쓸쓸한가운풍정은더소조하다무학재안현무소원대는근년에무섭게발전하야이왕산압줄기로향촌동(杏村洞)산기슭이며현무소뒤로는 빈틈업시 집이만히들어안저 정신을채릴수업시차마와사람의 교통이 빈번하지만은 고개하나무학재를 넘어서면쓸쓸하기 짝이업다 한적한촌락그대로이다

×

그러나 녯날철도가뇌이기전에는황평서도(黃平西道)는물론청국(淸國)과 사신을 밧구든길이라 고해도 이무학재를넘는길 하나밧게는업든 그시절에는 그래도 ㅅ려치는 안엇든모양이다 길은좁고 고개는 오늘보다험하엿지만은왕도(王都)서울북로(北路)로는 다시업는길이되고보니 그존재가 중요햇든것은 더말할것업다 그러나 원님이나사또니관찰사니하는 지위놉흔 량반들이행차하든 역로의길가동리라 그들의 세도에눌리워 이곳에사는 사람들이란머리를들지못하엿나니 또머리를 들만한사람들은 이런곳에살을리도업섯다 다만교안으로들고나는 식객상인이나 인부들을상대로 음식점가튼것을 경영하야 생계를니어가는 사람들이 태반이엇다 그러고보니 그녯날에도 집은다소더잇섯슬련지를몰으나 동리로는역시 보잘것업는 초라한동리이엇든것은 틀림업는 모양이다 그 ㅅ의 사정을아는사람의 말들에어도

「그럿치요 녜나오늘이나무엇이닭으리오술집과떡집이즐고 또갈보집이 업서젓슬뿐이지요」

한다 녯날홍제원입대에는 소위「갈보」라고 일홈이붓는 술장사녀자가 만햇든모양이다 그리고 홍제원 명물이라할지 홍제원이라면 달아다니는 말에「인절미」가잇다 인절미떡에 물을만히처서 엇더케나잘놀어낫던지 사람의성품이 느릿느릿하면 홍제원인절미갓다는 별명을 놀려왓든만큼떡장사 만튼홍제원의인절미는명물의 하나이든것을 알수잇다

×

그러나 오늘의시대는 박귀엇다 오늘의홍제원이라면 화장터(火葬場)를 련상케한다 하로에도십수명식 무학재를넘는 장의차는 안산(鞍山)뒷골작이 화장장에 한줄기연긔로 사라지게를 작별한다 동리의집은 그다지만히늘지안으나 죽은사람의 묘표(墓標)만이 평장히늘어가고잇다 그러타고 내,외(內,外) 홍제리는쇠퇴하고잇느냐하면그러치는 안타 홍제내리는 근년에문안에서 밀려나오는 직공문화(?) 민들이잇서 인구가 다소늘어가 ... 공민등 월급사리하는 사람들도 시내살림에 부담이만흔것을피하야 이주하는 사람도 다소잇다 현재의인구는 내리가 이백사십칠호 외리가 엄백육십호가량인데 근방은 모다산이되여서 농사짓는 사람은적고대개 시내에 직업을 가지고잇다

×

그런데 홍제리의 발전을위하야서 무엇보다도 문제되는것은무학재길목이다 도로는 경의선일등도로이나 고개턱이 상당한경사가되여 차마의 통행에적지안흔불편이잇다 문밧시발전에만 올흘으면 이무학재현의로종이떠나 이거내린다면 이무학재와의련락이업마나떠면하겟되며홍제원방면의 발전도떠속하게될것이라고주장하고잇다 그만해도 근년에는쎄쓰가 홍제내리까지 삼십분격하야래왕하는것도 이지방을 위하여서는 큰도움이되여잇다 (사진은무학재)

飛行訓練하다 戰鬪機衝突墜落

◇大村灣海上의惨事

【電通大村電話】대촌해군항공대(海軍航空隊)에서는십이일오전에 비행기십여대로 대촌만(大村灣)상공에서비행훈련을하든중 오전팔시오십오분에 송강(松岡)일등항공병의조종하는전투기(戰鬪機)와천상(川上)삼등항공병의 조종하는 전투기가공중에서 충돌되야 두대가다바다에떠러젓다 곳구조하려 갓든바천상 삼등항공병은 바다에서시체로되여 떠잇고 송강일등병은행방불명임으로 계속하야 수사중이다

鍍金鉛筆詐欺

경긔도 양평군양서면 부용리(楊平郡楊西面芙蓉里) 최경식(崔慶植)(二元)은 십일일 오후다섯시에 시내종로오정목 금은매매(金銀賣買) 고물상유병문(俞炳文)의 가가에가서도금한연필한자루를내어노코십팔금이라고 속여서 이십원사십사전에 사달라하다가 목격을 당하지못하고 동대문경찰서원에게 붓잡혀서 방금취조를 당하고잇는중이라한다

安東縣警察廳員 四十名行方不明

삼백반군과교전하다

應援隊百名을急派

【電通安東縣十二日發】안동현케사구방면에 반만군이 모혀잇다는정보를듯고안동현경찰청에서는청수(淸水)지도관이부하팔십명을 거느리고 십일일아츰에출동하야 그날오후세시반경에 안동현에서서편으로 삼십오리가량되는 반석산(盤石山)에서 두목리자영(李子榮)의 부하 부석산(數錫山)의 거느린 약삼백명과 맛나서 약한시간반동안싸웟는데 경찰대는 반만군에게 포위되야 네명이부상되고 삼십이명은 겨우몸을피하야 달아나왓는데 지휘자청수지도관외 사십여명의소식은 알수업시 되얏다 경찰청에서는 곳응원대백명을현장에급히보내엇다

豫科三年制實施로 遜色업게되엿다

農科新設等은아즉實現難

京城帝大總長 山田博士談

동경(東京)에 출장중이든 경성제국대학 총장(京城帝大總長)산전량삼(山田良三)박사는 십일일오후에 돌아왓는데 제국대학 예과의 년한연장문제에대하야 다음과가티 말하얏다

년래로 문케되는 예과(豫科)의 삼년케는 명년신학긔부터 실시하게 되리라고생각한다 종래고등학교보다 일년이 짧엇다는것은 교육상중대한 결함이엇다더욱이 대학이라는데는 큰사람(成人)을 교육하는 긔관임으로 아히들과 가티급히 굴外팜은업다 좀더가라안진 태도로연구에 년케로되여야 겨우 고등학교케도와 갓게됨으로 압흐로는다소안심하게될 모양이다 또명년부터는 력사과(歷史科)를 충실히할터임으로 다른대학에 비하야 별로 손색이업게될 모양이다 이밧게농과(農科)리과(理科)공과(工科)도설치하엿스면조켓스나 여기에는 그만한 경비가잇서야 함으로 조급히 실현하기는어려운일이다

重爆擊機 日本海橫斷

빈송비행대(濱松飛行隊)팔칠식(八七式)중 폭격긔는 천도 (川島) 대위립산(立山)소위외네명의동승으로 십이일아침 네시오십분빈송을 출발하야 직선코―쓰로단숨에 평양비행장까지 날러와오후 한시십오분 무사도착하엿다 예정시간보다도 두시간일즉이 소요시간은 여덜시간이십분동안으로 십삼일 오전일곱시에도라갈예정이라고한다

×被告金光默은 事實을全部否認

주준식집방화살인사건심리계속

間島共黨公判午後續開

오간계속＝간도공산당사건의공판은 십이일오후한시 십분부터 계속개정하얏다 오전에 계속하야 장모집과 주준식집방화, 살인사건관계자

白致俊(백치준)에 대하야 심리를시작하얏다

재 피고도 농민협회의 목적을 알고 가입하얏다지

백 네

재 피고도 방화대에 드럿든가

백 방화대니 무슨대니 하는말은 듯지못하얏고 다만춤, 석낭등을 가지고가라해서 가지고간일은잇소

재 장모(張某)의집에방화하얏스나 목적을 달하지못하고주준식의 집으로 몰려갓슬때에 피고는 파수대에서 파수를보고잇섯다지

백 별로히 파수대라는말은 듯지못하얏고 다만 파수만보앗소

재 결사대가주준식의집에드러가서조사를한사람은김광묵이아니엿는가

백 밤이엇슴으로잘얼굴을몰으고 억못하얏소 다만그뒤에 키가적고 몸이가는사람이 말하기를 사람을 죽일대를 조직하여야 되겟다는말은 드럿소

재 결사대에는 모다 자원하야 드럿다지

백 그런소

재 나종에 주준식의 집에서는 우룸소리가나고 폭란 소리가낫다지

백 산에서 불꼿이 이러나는것을보앗소

재 국사당(國師堂)에서권부에게명령한사람은누구이엇느냐

백 『조청수놈라는사람에게중국사람집을치고주구(走狗)노릇하는사람을 따려죽이자 하는말을 드럿소

▲宋振燮(송진섭)에게대하야

재 농민협회에관게업지

송 드럿소

재 주준식의집안에까지따라가기는하얏지

송 따라가기만하얏소

그다음으로

▲金光默(김광묵) 에대하야

재 소화오년십월이십일밤수신향국사당압헤서 여러사람 들과모히어 방화대를 조직한데에 참가하얏다지

김 참가하지안햇소

재 장모의집에 불을 노핫지

김 권연 그런일이업소

재 다른피고들이 모다 피고가 그러케 총지휘를 하얏다하얏스며 예심에서도 그러게말하지안햇느냐

김 권연 그런일이업스며 다른피고들이말을 할리유가 업소

재 ××당의 사형선고는 그러케 간단한것인가

김 권연 그런일이업소 나는다만 주준식집에 잠간드러갓슬뿐이오 내가 맨나종에체포되엇슴으로 다른피고들이 혹은 나를 가라처서말햇는지도알수업소 경찰서에서는 어떠케 말햇는지 알수업소

재 폭탄이 터지는소리를 드럿지

김 무슨소리인지 소리가 나는것을 드럿소

재 ××당은 한가족중에 주구(走狗)가 한명만잇드라도 그 권가족을 다죽인다지

김 모르겟소

재 피고는 이법정에서는 사실을 부인하지마는 실상은그런 찬은것아닌가

김 아닙니다

재 그러면 그날밤 국사당에서 모히기는 왜 모혓느냐

김 『조청수』가 그곳까지 가라함으로 그귀의미도 모르고간것이엇소

재 소화오년 십월이십일은추수폭동(秋收暴動)에의하야로적방화(露積放火)、주구청산(走狗淸算)은혹술보간는아니냐 려행동을 한것이아니냐

김 다만 먼곳에서 불꼿만보앗소

재 도라오는 길에 ××당 『세라』를 뼈리고왓다지

김 모릅니다

재 그래고서 주준식의 집에가서 모다댑버드러 불을노코그들가족을 찔러서 죽인일이잇지

김 모릅니다

재 그뒤에 그들이병원에 입원하얏다가 죽은줄은 알지

김 신문을보고알앗소

재 네가 지휘하야 『탕』소리만나거든 주준식을 죽이라고한일이잇섯지

김 권연업소

주준식의집에 드러간일도업고 또한 주준식을 주구(走狗)라고 하야위협하고 죽이겟다는 말을 한일이업다고권연부인한다

이事件首謀는 曺聖守等이다

다른사람들이내게다모라세운듯

徹頭徹尾否認一貫

김 권연 모릅니다

재 피고는 주국공산당원으로 그런것을 모를리가 업지안는가

김 나는 평강구(平崗區)책임자임으로 권연모릅니다

재 여러피고들의 공술과 기타 여러가지조서(調書)를참작하야 주모자는 피고인듯한데

김 결코그러치안소

재 그날밤에 지휘한 사람은키가커일럿고 몸이좀 능등한사람이엇다 하는데 피고밧게거게 해당한사람이 업다

김 아니오 나보다 더키가적은 사람이 잇섯소 『조청수』라는사람이 한것이데 모다 그와 한동리에 사는사람들이 정실관계로 혹은 친척관계로 그가 햇다는말을하지 못하고 모다나에게 한것가티 말한모양이오

재 주준식의 큰아들 병규(炳奎)가 당시에소(牛)배미테숨어서 벌벌떨면서 가만히보고잇노라니 결사대들이 차저와서 너의들의밀고로 령사관경찰에 우리동지가 두명이나검거되엇다 너이들은 죽여버려야하겟다함으로 주준식 가족은 결코그러치안타고하고 변명하얏스나 경관이 출장하면 언제든지 너의집에와서 류숙하는것을 보아서 명백한것아니냐고 위협하고 찔릇다고 보앗다하는데

김 권연 그런일업소 하고 중요한범죄사실인방화、살인사건의 지휘혹은 행동을하얏다는 사실을철두철미 부인하고잇는중이다

춘은 송태섭(宋泰燮)조성수(曺聖守)등 서명이주모인것으로대다ㅎ하얏다

재 자본주의사회의 재판으로 재판하는것이며또관결에 불만이잇스면 공소도할수잇는것이다 코 서면이 조사하야 처리하지안코 로그러케간단히 처리하는 ... 또결사 밀탐이라하드래도 지러에서죽여버리는법은업다

김 재판소에서 나에게 대하야사건을 명우파대하게 보고취급하는것갓다 그러나 내가경찰서에서 몹시 ×××× 하는것을 집작해주오 쓸데업는말 재판장에게 하고시픈것은 사회에는 도덕이잇는것이오 또한나에게도 량심이잇스니 권연죄가 업다는것은 아닌죽그런을들히 양해해주오

재 피고에게 죄가잇다고 예단을하는것은 아니다 다만긔록에적히어잇는것을보고십흔줄

十名審理

謄寫版關係

김 하는것이나 그것을 방해하랴하겟소 (서시에장간휴게)

다음으로 지이삼계이갑 만사처할사건의 관계자 황석건(黃錫健)리일남(李一男)정우한(鄭禹漢)동서명을 심리하고 이날에정이엇든 홍수명(洪壽明) 홍경도(洪京道)기타 외사건의 관계자 리동선(李東鮮)최관옥(崔寬玉)원용학(元容學)노창호(盧昌浩)등과 김태호(金泰浩)살해사건의관계자 로창호 리동선등은다음날(십삼일)로 미루고 이날의심리는 못내기로되엿는데 이날하로동안의 심리한 인원수는 전부열두명이엇다

×十三回公判은 軍營襲擊事件

李東鮮等十九名出廷

십삼일에 속행될간도 공산당사건의 제십삼회공판 예정은다음과가튼데 당일에는 중국륙군병영(中國陸軍兵營)습격사건관계자리동선(李東鮮)등십구명에대한 심리가잇겟슴으로 바칭하는 사람에게도 상당이 흥미를쓰을게될것으로 추측된다

一、洪淳明、洪京道殺人事件關係＝▲李東鮮▲崔寬玉▲元容學▲盧昌浩

二、金泰浩殺害事件關係＝▲盧昌浩▲李東鮮

三、中國陸軍兵營襲擊事件關係＝▲李東鮮▲車炳喆▲安應孫▲金昌旭▲孫昌福(不出廷)▲朴應喆▲李鍾德▲朴鳳賢▲崔成八▲白晶鶴▲張貳得▲金仁完▲金禮植▲白鶴天▲崔寬玉▲申君弼▲崔永吉▲崔永禹▲朴今龍

四、假權證書强奪事件關係＝▲車一均▲鄭泰洙▲申鍾洙（不出廷）▲車會哲▲白晶鶴

合同은教主의宿願

吳氏에게中央復歸命令은事實

再考를約한沙里院派는어대로

天道教舊派의合同問題

천도교의 구파(舊派)와 사리원파(沙里院派)사이에 합동문제가 잇다함은 이미보도한바어니와 다시 그진상을알아보면 다음과갓다고한다

구파의 교주 박인호(朴寅浩)씨는 오래전부터 자긔의생전에 교회의합동과 원만한발전을 보기 위하야 로심하여오든바 작년에도 사리원파의오씨를칭하야 중앙에와서 합동하야 교무를보라고권한일이잇섯고 이번에도 오씨를칭하야 중앙의일을 마타가지고、교회를 합동하야 잘보도록 하라고한바 오씨는 당장에서 그럴듯이 승락하엿다고한다 그러나 그이튼날오씨는다시박인호씨를방문하고사리원에 나려가서 의론하여본후에 확실한대답을 하겟다고하고 지난팔일에 사리원으로 갓다함으로 금후의합동문제가 엇더케 될른지는 매우주목되는 일이라고한다

心法傳授는 事實上不可能

다만합동권유

이번박교주와 오영창씨의 회견에서 심법을권수(心法傳授)하엿다는말이 잇섯스나 이에대하야 천도교의모씨는말하되 심법권수라는것은 사실로 할수업는 일입니다。정묘년(丁卯年)팔월 십사일에 춘암박인호선생께서 심법은 일반교인에게 권한다는 설법(說法)을 하신일이잇슴으로 금후로는 개인에게대하야 심법을 권수하는일은잇슬수업는일이오 다만 합동을 위하야 오씨로하야금 중앙의일을 마터가지고와서 잇스라는말슴을 하시엇는지모르겟슴니다」한다

東大門署事件 內容은依然不明

청년들은계속취조진행중

女商校生等五名釋放

모사건의 혐의로 동대문경찰서고등계에서 검속취조중이든 녀자상업학교 학생네명과 종연방적회사 녀직공한명은 하등혐의가업는것이 판명되엇슴으로 모다십일일에 석방하고 다른청년사오명은 그냥계속하야 취조중인데 아즉무슨사건이라고 명백히 일홈을 브칠수업다한다

西署에捜査願二件

『쎈티멘탈』한 가을긔운의 유혹인가 집을떠나는사람이 만히생긴다 ── 시내현저동(峴底洞)사십륙번지 조종태(趙鍾台)(二三)는생활곤난으로 늘가정이 불화하든중에 지난달이십삼일밤에 내외간에 압다툼을하고 집을떠난뒤로 이날까지 도라오지안는다하야 십이일에 시내사직동(社稷洞)사는그의형 조영교(趙榮敎)로부터 서대문경찰서에 수색원을케출하얏스며

◇

또양구군남면 양촌리(楊口郡南面陽村里)최대옥(崔大玉)의안해게명옥(桂明玉)이라는스물세살되는 녀자는 수일전에무단히집을 떠나서 도라오지안는데 아마고양군신도면 현천리(高陽郡神道面玄川里)한모(韓某)라는 남자에게 유혹을당해간것갓다하야 십이일에 양주경찰서로부터 서대문경찰서에 수사의의뢰가왓다한다

외상갑을달난다고 作黨毆打

피해자가손해배상청구

외상갑주마하고 쇠여다가 작당구타하고서마증내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의 청구소송을 당한사건이잇다 경긔도 부천군 계양면 병방리(富川郡桂陽面兵房里)리성천(李聖天)은 경긔도 김포군 고촌면태리(金浦郡高村面台里) 로동우(盧東愚)리창근(李昌根)등 량명을상대로 지난달 금음에경성지방법원에 손해배상 삼백사십사원팔십전의 청구소송을 이르켜서 방금쟁소중에잇는데 원고리성천은 피고로동우에게 쌀갑(외상)구원륙십전버가잇섯는데 십전을바든것이잇슴으로 지난팔월십이일에 로동우가 백미두말을 또외상으로달라는것을 거절하얏더니 로동우는 그달십오일에 자기집으로 와달라고함으로 그리집에 차저갓든바 그는리창근외 한명과함께 주식(酒食)을버려노코서 먹으라고 권고하야 식것먹여노코서는 회계기를 런다고 말성을부려서 돈바드러간 원고를방안에 싹가두어두고무수히 란타를하얏는데 그이튼날발증에야 겨우피해 도망하야 자기집에 도라가서 삼수일아상이나 병원에입원하야 치료하얏슴으로 말미암아 약갑과그동안장사못한 손해가 전과와가튼금액에달하얏다는것이라한다

思想關係判檢事會議에 朝鮮서는二名出席

【聯合東京電話】사법성(司法省)에서는 오는십팔일부터륙일간사상관계관검사회의를열고 사상사건관계자를 취급하는데대하야 협의한후 전문가의특별강연도들리고새규칙에대한설명도하기로되엿다는데 각지방재판소의사상관계판검사두명식이 출석하기로되야 조선에서도두명이출석할터이라고한다

神鏡야式蹴球

中學部에 徽文優勝

◇光成惜敗◇

徽文3…2光成

徽文高普對光成高普決勝戰은十二日午後二時十分부터 京城球場에서 玄正柱氏審判下에開始한바結局3對2로徽文優勝하엿다

【前半】約二十分間 兩軍一進一退中央線附近에서接戰을演하드니 二十三分에光成大擧突入하야 徽文門前에서 混戰하다가光成LW尹國振의패스를R金龍基슛하니 最初의一點을어더氣勢를올니더니 徽文三十分부터猛反擊을發揮하기 始作하야三十一分에 徽文CF韓泰昌의슛한것이보기조케 골인되니1對1同點되여 이로부터形勢는더욱緊張한가운데 兩軍無得點으로前半은1對1로마치다

	GK	FB	HB	FW
【徽文】	金容武	金義行 朴炳元	黃義老 殷晋淨 李容一	朱明謙 沈明彥 韓泰昌 洪性熙 金昌鎬
【光成】	崔永哲	朴奎楨 羅絢成	申永麟 韓利涉 盧澤寀	朴應龍 金龍基 張世德 朱鳳德 尹國振

【徽文】		【光成】
13	門蹴	6
7	角蹴	2
17	自由	6

【後半】六分에光成好機를노치고十一分에徽文RW朱明謙의슛골인되여 徽文優勢를보이더니 光成奮起逆襲하야 LI金龍基의슛으로 一點을回復하니2對2 同點되고 二十七分에 徽文RW朱明謙의슛으로 一點을어드니 結局3對2로遠來의光成軍惜敗하엿다

專門部엔 普專優勝

◇世醫專惜敗◇

世醫專對普專決勝戰은 十二日午後四時부터孫寅昌氏審判으로開始한바 前半은兩軍無得點으로마치고 後半에드러가, 普專二골을어드니 結局二對零으로 世專軍惜敗하엿다

(詳細한經過는夕刊에)

專門校軟式庭球

專門校軟式庭球戰은 十二日午後三時부터 京師코―트에서行한바 編輯時間까지에 經過는 아래와갓다

【第一回戰】

○法專	嚴翼鉉 趙世新	4棄0	高昌烈 李昌龍	延專	×
○普專	成炳文 柳太能	4棄0	趙誠虎 張尚浩	藥專	×
×醫專	越部 大塚	3—4	向井 三宅	高商	○
×高農	朴龍植 赤塚	0—4	田中 美濃甲	師範	○
×法專	朴容哲 成泰利	3—4	安藤 光田	高農	○
○高商	庄山 根司	4—1	峰岡 高井	高工	×
○延禧	金聖觀 李慶得	4—2	金瑢洙 申應錫	普專	×
×高農	上野 城戶	2—4	徐洪錫 安友	師範	○
○法專	李正來 趙成鎔	4棄0	高學洙 金得洙	藥專	×
○醫專	田中 吹田	4—1	松島 葛原	高工	×

神鏡專門野球

醫專19……1齒專

京城醫專對齒科醫專野球戰은十二日午後一時十五分부터京城球場에서 咸龍華黑甫孟氏審判下에開始한바 七回까지에 9對1되여콜드께임되여醫專大勝 (閉戰二時四十五分)

醫	11	1	3	2	6	2	0	=19
齒	0	0	0	1	0	0	0	=1

▲投捕 醫專…兒山•內王•古澤 齒專…尹麟炳•藍原

善隣15…0大邱

善隣商業對大邱中學野球戰은十二日午後三時부터 京城球場에서開始한바 七回까지에 15對0의大差로 結局콜드께임되여 大邱中學敗하엿다

鎭咳祛痰劑 ブロチン 부로친

三共 SANKYO

元賣發造製 東京•室町 三共株式會社

BROCIN

부로친發賣以來이미十有八年 只今은鎭咳祛痰劑中의白眉로서新藥界에第一位의聲價를博하고잇습니다。이本品은如此한特長을有하기때문입니다。

長特

(1) 奏効顯著한것…… (2) 胃腸障碍其他의副作用을有치안음。應用安全한것…… (3) 氣味佳良하고服用容易한것……

適應症

咳嗽並喀痰을伴한急性慢性의呼吸器疾患並百日咳

粉末•錠剤•液剤各種•別히美味服用至便한 부로친본본(糖菓)도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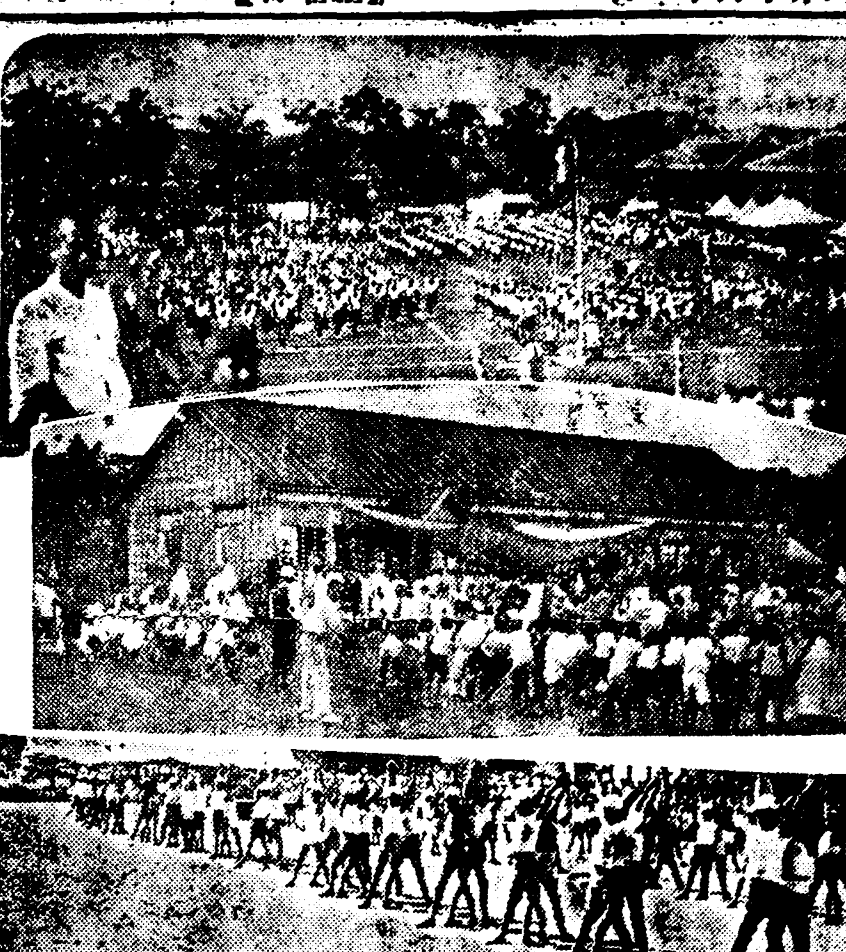
(說明書呈)

嗽含 オキシフル

三共製過酸化水素水

粗製한不良類似品有。購求하실때에는必히오기시풀及三共株式會社名儀의有無에注意。

東京•室町 三共株式會社



[illegible]學校秋期運動會寫眞 (上)黃州公普校(中)[illegible](下)[illegible]

小作爭議勃發의 未然防止策講究
惡德地主嚴重取締하라고 道에서各郡에通諜

【天安】 금년충남도의농작물은 자방적으로보아 풍작이곳도잇스나 대체로보아서 는평년작보다 다소증가를 예상케됨으로 악덕지주배와 채귄들이 무자비하게 발호할터임으로 소작쟁의가폭발될뿐아니라 농민들이 더욱궁상에빠질것을 방지하기위하야충남 내무부장과 경찰부장은각군수와 경찰서장에게 통첩을발부하야 철저히 취체하도록엄명하얏다는바통첩의내용은다음과갓다한다

지주들은 소작인과원만히 협정도하지안코독단적으로소작료를 사정하게되야 소작인들은농평흉만을 참다못하야 마츰내쟁의(爭議)까지발생케된다 악덕지주들은 미가락(米價低落)으로 손실되는 것을 소작료로 충당하겟다는 야욕으로써 소작인들이 밧는타격은 불소할것이며 종전에 미수된소작료와 대부하여준농량(農糧)과 비료대를고리로 계상하야 먼저중수한뒤에 소작료를 밧게되야 소작인은 일층곤궁에 빠지게한다 그리고어떤자는 악덕사음놈두어 소작인으로부터부당리득을 착취하는 자등이잇스니 철저히취체하라

大邱旅客爭奪의軋轢戰
雙方妥協으로解決
旅人宿組合의謝過와『뽀이』解雇를條件으로

【大邱】 권조선주일학교대회에 참석하기위하야 각지로부터대구로모여드는 예수교인 삼천여명의손님을 상대로하여 대구려인숙영업자와 음식점 영업자는임대 쟁탈전이 일어나서지난칠일에는 류숙하는손님을빼기위하야려인숙의일부책임자책동으로는려인숙 려관보이 오십명이대를지어 밤중에 음식점을습격한 사건까지잇서 려인숙조합과 음식점조합간에 분의가일어낫다함은 긔보한바와갓거니와 그후 대구서의 조정으로 량조합에서는

一、旅人宿組合長은 飮食店組合長에게 이번事件에關해서 [illegible]할것

一、七日夜中에 飮食店을뒤진 不法한行動을한 旅館뽀이五十名을解雇할것

동운 조건으로하야 무사해결하엿다는데 해고될오십명의 뽀이가주목된다고한다

今年度의 生鰯價格協定
從前보다十六錢引下

【長箭】 동해안연해일대에수십만어민의 사활문제인 정어리의금년도 가격협정은 지난팔일부터 장전에서 무소졸순 강원도수산련합회 회의실에서 도수산과장의입회하에 고성(高城)영진(靈津)장전(長箭)주문진(注文津)삼척(三陟)등지 어민대표가 모히여 자망표준가격(刺網標準價格)을아래와가티 결정하엿는데작년도 처오리에 비하면 십륙전이나 커득되엿다한다

◇生鰯協定價格
第五期 一圓四十錢
第六期 一圓十七錢
第七期 一圓
第八期 七十錢

窮民은어데로?
風水害에農凶든豊基一帶
嚴冬에臨한그들生計暗澹

【豊基】 경북풍긔지방에서는 긔번 삼남대수재 에도삼백여정보의전답이류실 되고 청숙고에이르러또 다시폭풍의 악희를바더 야케는시들고 벼는쓰러저서 수확의 긴봄만보아야 할이벼 논두력에안저 눈물지는양은 동정을금할수업는바 지금은풍긔명산감(柿)을과려 연명한다하나 엄동이닥치면 그들의 이후생계는아득하다고한다

苗代品評會

【載寧】 황해도재녕군북률면북지리(北栗面北芝里) 림상근(林尙根)씨는면내모범적실농가로금번 황해도내 묘대품평회에 일등으로 당선되여 만흔상품을바덧다한다

一個月未滿에 密酒百餘件發生
禮山地方에서

【禮山】 충남례산군청에서는 음력팔월명절을 위시하야 군하각동리를 대수사한결과 밀수자를다수 검거하야일개월 미만에검거수가 약백여건이라한다

教育研究會臨時會

【靑栗】 재녕군공육연구회에서는 림시회를 북률면숭의학교(崇義學校)에서열고 회장림재호(林在鎬)씨사회하에다음과가튼사항을결의하고산회하엿다

一、懸賞雄辯大會開催의件
一、秋期聯合修學旅行의件
一、勸勵教員表彰의件

關北勝地東安에 東安寺新築竣工

【新上】 관북명승지의하나인정평동안산(定平東安山)에는지금으로부터 약팔백년전 고려인종(高麗仁宗)때에동안사(東安寺)를짓게되여 람바객들의유일한안식처가되엿다 그동안 봉질은수십차의중수가잇섯다가지금으로부터 사십년전에 신축하엿드니 비와바람에 부다거인제는 봉블엽시 퇴락되고만지라 주지 림한협(林漢協)씨는이를신축코저 수년전부터 긔도재금의 첫음(獻金)과일반의긔부를모아공사비천여원으로 지난봄부터 승당과실사(寮舍)신축공사에착수하야이제준공을보게되여 동안승지의면목은새로워젓다한다

長箭 金剛山觀楓團募集

△時日 十月十五日
△會費 壹圓式(汽車費食寫眞代並)
△申請期日 十四日까지
◇路程 奧萬物相·舊萬物相·新萬物·相溫井里
◇申請場所 本報長箭支局● 日光商會● 永益商會

木浦 內藏寺探勝團募集

△出發及歸還 十月十四日午前九時發 十五日午後十一時半歸還
△申請場所 竹洞東南商會
△會費 七圓(往復車賃及食費)
◇主催 東亞、中央、朝鮮木浦三支局

平壤 秋期大講演會

演題及演士
『金玉均의三日天下』 朝鮮日報社編輯顧問 文一平氏
『文學上으로본東西各民族性』 崇實專門學校教授 梁柱東氏

△日時 十月十四日(土)午後七時半
△場所 白善行紀念館
◇主催 平壤基督教青年會
◇後援 朝鮮日報社平壤支局

運動競技
全黃州ㅣ主日 學校大運動會

【兼二浦】 황주군영풍면양성학교운동장(黃州郡永豊面養成學校運動場)에서는 래십일칠일(음팔월이십팔일)에 겸이포주일학교련합회 주최와 본보겸이포지국(本報兼二浦支局)후원하에 전황주주일학교 련합대운동회가 개최될터인데 동회는자못준비에 긔대와가티 대성황을이루리라한다

宣川店員慰安 大運動會盛況

【宣川】 선천 신문긔자단 주최로 오는십오일에 읍내공립보통학교운동장에서 시내각점원위안운동회를 개최한다는바 당일운동의 종목은 다음과갓다한다

◇競技種目ㅡ百米、目測競走、紙幣計算、包裝競走、見貫競走、計算競走、運搬競走、呼出競走、二百米 匙卵競走、盲人拾果、步測競走、四百米 障碍物競走、紅白리레、마라손、自轉車競走

地方人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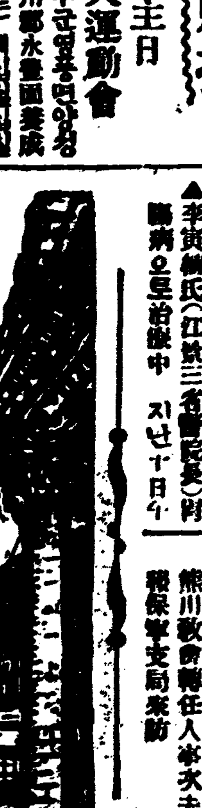
▲澤邊淳一氏(大邱地方法院榮州出張所主任) 新任人事次本報榮州支局來訪
▲朴基永氏(本報內宗分局長)三日間豫定으로十日에平壤出張
▲崔瑆俊氏(本報內宗分局顧問)黃海九月山探勝次十日出發
▲千葉慶一氏(新上學校長)新任人事次去十日新上支局來訪
▲李寅錫氏(江界三省醫院長)肺病으로治療中 지난十日午前一時西町自宅에서永眠
▲金秀英氏(全北長從教會牧師)熊川教會轉任人事次去九日本報保寧支局來訪

南浦幼稚園巡禮 (4)
宏大한園舍가진 三崇幼稚園
鎭南浦支局 一記者

진남포룡정리 일우에 웃둑소슨 련와제 이층양옥이잇스니 이것이신흥 리감리교회의 경영인삼숭유치원이다 동원은 지금부터 약십오륙년전 대정칠년경에 당지비석리 긔도회실에서 아동십팔명을 모아가지고 개원하엿는데 그동원아는점점 증가하여 다음해에는 칠십여명이 되엇다 하다 그리하여이원사로는 도저히수용할수가 업서서 보육의목적을 관철할수업다하여 서양선교사들의 후원을 어더 총경비일만오천여원을 드려련와제(煉瓦製)이층양옥건평 칠십사평을 신축하여 유희실과 보육실보모실등이 완비하엿슴으로 원사로보아도 서조선에서보기드문 원사를가젓다고하겟다 이러한 원사가준비됨을따라원서는더욱발전되여 원아도팔구십명에 달하며 보모도세사람이나 시무하게 되엿다 대정십삼년에 당국의인가를어덧스며 창립당시에 서양사람의명의로 설립자가 되엿든 것게로 아직설립자는지근지(池根是)란 사람이요 창립당시부터 만흔활동을하기는 안창호(安昌鎬)로매옥(盧大部)오창섭(吳昌燮)박유병(朴允秉)김취려(金就麗) 최봉인(崔鳳仁)제씨라는데 유지박침으로는 선교회보조와 보육료로 지내간다고하며 긔자가 동유치원을찻기는 오전열시반경이엿다 보모박옥경(朴玉卿)최순학(崔順學)두분은 성격이침착하면서도 활발성이잇는바 화양은 금춘중앙보육을나온신진이요최녀사는동유치원에 사년간 이나 계속하야 등원으로 사구가합석하여 동원을 위하여최선을다 하ㅡ으로 조흔성적을 보고잇스며 작년도에는 자모회를 조직하여유치원과 련락하여 원아보육에큰여할을 하고잇다고한다 현재원아가오십여명이 요금년봄까지십오회의보육생을내엿다고한다 옷효로 친주교의 경영인마리아유치원까지 방문케되야 종종히다녀서 룡정리 공원놈동창아래에잇는 마리아 유치원을방문하엿스나 동유치원 당국자는말하기를 이러케오신것은 고마우나 우리유치원만은 아직세상에 공개하기를 원치안습니다 그래서금번기도하나 그대로발표합니다고 하여버림으로 긔자는 종석섭하로되엿슴니다하며 일체를 사절 진남포유치원이 총 동원을한다는 련합운동회에도 참가치안키만이것으로 순례기는 못유막고 말게되엿다

(사진은 三崇幼稚園兒들의노래하는光景)

史話 雲峴宮의봄 (108)
琴童作 老山畫



十一의二十九

「이 일(리하전 사사사건)이 대감에는 흥은 천희위복이 되지 안켓습니가」

리하전의 사건이 불밝되던날 성하가 홍선에게 향하여서던진 이 한마듸를 홍선은 얼골의 모든 표정을 죽여 버리고

「무슨 소리인지 알수가 업네」

하고 넘기어 버렷지만 그말이 홍선에게 잇서서 결코 무의미한 말이 아니엇다

그날밤 가인들이 모도 잠들기를 기다려서 홍로 향스블을 피워 가지고 가묘의지나간 오대의 조상의 위패아페 섯에는 홍선은 괴괴한흥분과 괴괴한 기대버문에 가습이 열렷다

일즉이 청하를 통하여 조대비에게서 뵙고 조대비에게미움은사지아홀만한 교제를 매저노핫지만 그것으로서 그의야심이 찰수는 무론아니다 조대비에그맛 신임뿐으로 야망이 성취된나하면 종친공자로서 야망을 성취치못할사람이업슬것이다

흥선도 집작하거니와 인손이라하는인물이 조대비의사랑하는 왕실종자로서 상감붕행하신뒤에는 十중八九는 사직의승계자가 인손이가 될것이다 언제업마만치 더조대비께 자조출입하여 홍선자긔가 인손이보다 더신임을엇기전에는 「텁」은 인손이의 것이 될것이다 홍선 자긔는 닭쫏든개모양으로 지붕만 쳐다볼이블이 될것이다

시정에 배회하면서 권문거족들에게 멸시를 바들일을만일업시 하는 한편으로는 홍선은 또한 조대비에 더욱가까히하여 인손이보다 더신임을 어들 바탕을 늘 쑤미고 잇든 것이엇다

인제 김씨일문의 손에 인손이가 업서젓는 지라 홍선측으로 보자면 또한 강적(强敵)하나가 업서진 것이엇다

「당신의 후손의 아페 지금 복의 문이 열리나이까 흥은이원도 특별히 관심을배가아니오니까?」

위패의 아페 이런 호소를 할때는 흥선의 눈에는 다란히 비치 섯다

그로부터 홍선의 난행(亂行)은 더욱심하여 젓다 천하장안을편하여 불마오며 대나켜도 이런 장배들과 큰소리로 농담을 던지며거리를횡행하여 더욱 사람들의 우슴과 멸시를 사기에 노력하엿다

지금 자긔의 몸은 귀한몸—여차하다가는 상상도 하기 어려운 귀인이 될지도모르는 몸인지라 이몸을첫불리 김씨일문에 산 제사로 바처서는 안될일이다

이러하여 그러치 안허도남어 손가락질하는 난행을거듭하든 홍선은 리하전이 업서진 뒤에는 더욱 어즈럽고거츠른 생활을 시작한것이다

그러는 한편 홍은 조대비가 자긔를 부르는 날이 잇지 안홀가 하여 그는 그준비를 게을자 안햇다

다만 한사람 신임하든 리하전을 일흔 조대비엇다 다는 종친들은 지금 모도 김문의 부하가 되여 잇는 중에 (멸시는 바들지언정) 부하는 아적 되지 안흔 유일인인 종친 자긔는 장래 어연날 반드시 조대비가 부를날이 잇슬것이다 그날을 준비키 위하여 흥선은 가난한주머니를 털어서 새 관복이며 서대며 사모를 모도 준비하여 두엇든 것이엇다

「구름려 오는 복—」

그것은 과연 구름려오는 복에 틀림이 업섯다 김씨일문은 자긔네의 안권을 도모키 위하여 리하전을 업시한 것이로되 리하전이 업서지기 때문에 리하전에게 나려지려든 복덩어리는 인제시웃팔구는 홍선 자긔에게로 구름려 올것이다

표면 난행에 난행을 거듭하면서도 이날을 기다리고 잇든 차에 조대비의 조가 성하가 대비의 봉부로 자긔를 부르러 온것이엇다

위의당당히 청하와 함께 창덕궁으로 가는 동안 홍선의 얼골은 히망과 긔대로 빗낫다 그러고 어떤 정도까지의 자신도 가지고 잇섯다

松の實 キャラ

どりこのを召上れ!
도리고노

健康第一!
疲勞恢復、精力增進에는 高速度滋養料「도리고노」를 꼭愛飮하십시요!

「도리고노」는高橋考太郎博士發明創製의高速度滋養料로、人體活力의源泉인葡萄糖、果糖及아미노酸을主成分으로하야서、더욱美味芳香을가진가장近代的인滋養料입니다。

疲勞에…「도리고노」
事務繁忙、勞働過度其他心身에 疲勞를感할때의『도리고노』는疲勞를恢復하야精神爽快、머리를시원하하야、更히오랜心勞에견듸게됩니다。

食後에…「도리고노」
食後의『도리고노』는消化를도음고氣分을조케합니다。過酒한때冷水에타서一杯는더훌륭 近日酒席에서下戶의飮料에도盛用됩니다。

運動에…「도리고노」
競技를압두고『도리고노』의一杯는、主成分이活力의源泉이며、直接吸收되여『에네기ㅡ』가되는故로湧然하게이러납니다누구든지꼭쓰십시오。

工夫에…「도리고노」
頭腦를쓰면糖分을二倍必要하다함니다。工夫할때에는꼭『도리고노』를마시어身體를弱하지안케머리를漸漸明晰히하도록하십시요。

幼兒에…「도리고노」
母乳적은幼兒나、乳離의小兒에는업지못할滋養飮料입니다。不消化의걱정업고、더욱必要分을適當히包含되여잇슴으로非常한好評을得하고잇습니다。

接待에…「도리고노」
누구시든지깃버하는美味한飮料이오니、茶나컵피代身恒常써서來客의接待에도近代的의好飮料로서漸漸널니需用되여잇슴니다。

妊娠에…「도리고노」
妊娠中에계신분이日常쓰면、胎兒의發育을잘하고衰弱을豫防코惡阻로입맛업슬때도『도리고노』는깃버합니다、産後의衰弱恢復을爲하야도쓰십시요。

定價 一圓二十錢・徳用瓶(倍量入)二圓

全國有名藥店、食料品店에有

發賣元 東京・本鄕 大日本雄辯會講談社商事部
總代理店 東京・大阪 玉置合名會社

D.295

日本提案報應策으로 日本品에附加稅

印度側官民協議會서綜合提案 十二日交涉에提議

【홍콩십이일發】 印度側의 情報에依하면 印度政府는 日印會商을 促進키爲하야 될수잇는대로 討議를 具體化할目的下에 十一日午後五時 當業者를招待하고 官民協議會를 開한後 各自意見을 提出식혀 此를基礎로 一層具體的綜合的提案을만든後 十二日日印政府代表交涉에서 日本側代表에提議하기로되엿는대 그中가장注目되는바나는 印度側의메리아쓰綿保護要請外六個月後에施行될氣運에잇는産業保護法을適用하는外國品에對하야는現行關稅를五割까지引上한後特히日本品에對하야는爲替의低落에比例하는爲替關稅라고부를만한附加稅를課하려하는것으로알아서十二日提出될印度政府案은過般의日本의關稅引下提案에報應할對案의形式으로서 民間要望을背景으로하는法律的稅案을包含한重大한主張으로 最近政府는勿論當業者側에서도 會商促進을焦慮하는空氣가顯著하야 今日의交涉은 重大한展開가期待된다한다

印度民間代表 메리아스 關稅引上 쏘아長官에게要求

【東京십이일發】 日印民間協議會가決裂로政府交涉도難關에 逢着하는同時에印度政府와民間代表와의 往復은去益頻繁하게되어 十一日에도印度民間代表는連次商務長官을訪問하고 審議하엿는데其內容은메리아쓰關稅의引上에關하야 協議한 模樣이다 此에對하야 印度側으로부터 探聞하면外國製메리아쓰에對한 關稅를五割로하고 日本品에는더욱其此에一定한爲替下落率을 加算한것을課하라고『쏘아』長官에게要求하엿다

印度民間團 具體案提出

【東京십일일發】 印度政府로부터 日印會商에對한具體案을提出하라는 要請을 받은 印度紡績聯盟作成及手續委員會는 連日會議를開催하고 協議를進行한結果 十一日에이르러 具體案을어더서合으로明十二日正式으로도 印度政府에提出하기로되엿다 聞하면右具體案에對하야는 印度側에서는共同의 利益을 關係産業部門의 利益도充分히 尊重한最善의 方策이라고稱한다 勿論日本民間代表의 要求와는 相距가 멀다고보나 從來各商議部門의利害가對立된結果具體案을提示치안코 印度代表가當業者의主張을提出한것은 日印會商에一進展을보이는것이라고期待된다

日英民間側 文書折衝繼續

【東京십일일發】 十一日午前日英民間協議會는僅五十分만에終了되엿는바 午後는文書에對하야 折衝을繼續하엿다卽『랑캐쉬』代表가 午前의會議에서約束대로 午後五時今後의日英民間協議會의 方針, 議題의範圍等決定에關한 提案을日本代表에게 提示하엿슴으로日本側도急速히右에對하야 協議하야不滿足한點을 訂正하야 英國側에回答하엿다 此에對하야英國側은 더욱此에 此하야訂正을加하야 逆提案하엿는데 日本側은 더욱此에 滿足치못하고 再訂正을한 後提出하엿슴으로 英國側은 此에對하야 十二日午前回答하겟다고 하엿다 民間協議會에잇서 英國側은抱容的으로 雙方의意見이一致되면 英案의內容은 直時協議할터인데 一致되지못하면 會商은 日英民間協議會席上에서더욱難關에빠질터이다

日英協議會 話題업시雜談

【東京십일일發】 十一日日英民間協議會는 日印民間協議會의 決裂도 별다른話題가 업스니까 雙方이모다散漫한氣分으로 開議를사괴어겨우五十分의 短時間으로마치엇다 『스트리트』氏(『만체스타』商業會議所議員)는 白紙에다가 日本代表의 얼굴을그리고잇다가 伊藤代表가 손을내밀어『보자』고 말한즉 「스트리트」氏가 『景界니께 以外는紙面으로對案을止』라하며 白紙, 집어처워一場의 笑를誘導하려키엇다 또今日『아포스트』代表는『마라리아』로入院햇슴으로『스피ー만』代表가 兩病가기때문에二人이缺席하엿다

『랑』綿業者에게 經濟情勢說明 ◇目下起草中

【東京십일일發】 倫敦에잇서 日英民間協議會 日本首席代表 岡田源太郎氏는 過般『랑캐쉬』를 訪問하엿슬때 綿業者로부터 바든質問書에 對한回答으로 日本의經濟一般에關한 詳細한說明書를目下起草하는中이다 右說明書는 日本經濟界의 現狀에關한正確한事實的解說을 『랑캐쉬』에提出하려는것으로 特히

一、一般經濟上의情勢

一、通貨問題

一、人口問題

等三項에對하야 詳細한說明을 試하기로되어잇는바 右說明書의內容에依하야 岡田代表는左와如히말하엿다

起草中의說明書는 말하자면『랑캐쉬』의質問에對한回答이다 實際의各점에對하야는 會商時에다시詳細히 對答할豫定이다 今回의說明書는 事實의基礎的條件을 明確히한것으로 이點에서 『랑캐쉬』의質問의根本에 對答이될것이다

日本의絹製品은 輸入禁止? 割當制

英高等絹業協議會決議

【英國倫敦十一日發】 英國高等絹業協議會는『만체스터』協議會에서 日本絹製品의輸入問題에對하야 審議한結果左와如히決議하얏다

政府는 日本絹製品의輸入을 配定制度乃至必要한境遇에는 全然輸入禁止의方法으로即時機宜의措置를講究하기를바란다 今日英國에서는 多數한勞働者가日本品과競爭한結果失業되고잇다 日英兩國의經濟狀態가相違한實情에鑑하야英國의絹業者는日本의商品보다도低廉한價格으로販賣하기는不可能하다

印棉不買로 積出全無

【電通카라치十二日發】 日本의印棉不買影響은顯著함에나타나日本으로 向하는 棉花積出高는昨年十月은 三千八百八十俵임에反하야 今年度는一俵도업고輸出業者는 悲鳴을發하고잇다 日本行汽船은積荷가적어 [illegible]에出現하고잇다

三萬町步減段엔不觸

移出稅賦課 移動米制限 絕對反對

朝鮮米擁護期成會와朝鮮農會 東京方面에陳情內容

朝鮮米擁護期成會及 朝鮮農會兩會長으로부터 十二日 東京各地關係方面에 提出한對策案은 減段問題에 關하야는總督府代表渡東員이三萬町步까지 減段을 承認하고잇슴으로 同問題에는 抵觸치안코 移出稅賦課及 移動米制限에는 絕體反對하는二點을主로陳情할터이다

米移出累計 七百七十萬石

◇比前年同期累計 五十一萬餘石增

十月上旬의米及粟輸移出入高는如左하다 (米는玄米로換算, 單位石)

▲米輸移出高

輸出	二、四九一
移出	一〇八、七四四
合計	一一一、二三五
同前年同期	一三六、九九八
十一月以降累計	七、七六五、五四四

昨年十一月以降日本移出累計는七百七十六萬五千五百四十四石으로比前年同期累計七百二十四萬九千石에比하야 五十一萬六千五百三十六石의增이엇엇다

▲米輸移入高

輸入	一、三三八
移入	二、七三三
合計	四、〇七一
同前年同期	四五六
十一月以降累計	一〇〇、三五七

▲粟輸移入高

輸入	五、二九六
移入	
合計	五、二九六
同前年同期	八、一六六
十一月以降累計	一、〇二六、三八七

九月中의 對日貿易 移出減、移入增

昭和八年九月中의朝鮮對日本貿易概算은如左하다(單位千圓)

移出 二一、二一三 (前年同期比減 一、四二二)

移入 三三、九七三 (前年同期比增 二一、九四二)

計 五四、一八六 (入超 一一、七六〇)

米倉在庫數量 七萬三千餘石

米倉會社의十日現在在米量은거우七萬三千百三十四石으로前年에比하야十九萬四千石이減少되엿다 ▲釜山三三、四〇九石▲木浦三、三五六▲群山一五、一七六▲仁川一一、六〇五▲鎭南浦九、五八八

朝鮮取引所聯合會 當分間形勢를靜觀

東京에서열닌 各地米穀取引所와取引員聯合大會에서『米穀取引所關係要望』을決議한것은 既報와갓거니와 朝鮮側으로서는 直接이에 參加하지는안엇지만 同一한立場에 잇는만큼 關心을 가지고잇는터이나 아즉米穀統制關係가落着되지 안엇슴으로今後形勢를 靜觀하기로된모양이며 十一日秋山 朝取常務가總督府에가서 『十一月一日부터 實施되는新米穀法으로 取引側의處地는 대단히困難하니 考慮하여달라』는말을하얏고 別項米保兼營問題를 懇談하얏다한다

朝銀間島進出 灰幕에派出所設置

【綜合東京電話】 朝鮮銀行에서는滿洲國의 治安維持를確立하는同時에 各方面에 派出所를設置하야 日本의 國庫取扱及同行自身의 業務擴張을圖하야이미設置되엿슨 齊齊哈爾、拉爾、錦州、承德、赤峯으로다시北朝鮮과 滿洲國과의 聯絡을緊密하게함에 伴하야 雄基에도達하는바 이번에 滿鐵側의希望에基한 間島地方灰幕洞에派出所를設立하기로되엿다

滿洲의需資로 朝銀貸出增加

各地別預金、貸出狀況

朝鮮銀行今秋의貸出은滿洲國建國資金의需要增加로 依然三億二千萬圓을不下하며 昨今은三億二千五六百萬圓으로 漸次新記錄을示現하야 이대로가면 國米資金과 滿洲特産資金及年末決濟金等으로 例年最高記錄을示現하는年末에는 三億五千萬圓을突破할것으로본다 此에對하야貸出은一時二億一千萬圓을突破하얏는대 滿鐵大口預金의引出로一億九千五百萬圓가량으로減少하얏는대 此를各地別로示하면 如左하다

▲預金

朝鮮	五、〇〇〇萬圓
滿洲	一〇、〇〇〇萬圓
日本	一、五〇〇萬圓
其他	三、〇〇〇萬圓

▲貸出

朝鮮	一六、〇〇〇萬圓
滿洲	四、四〇〇萬圓
日本	一一、〇〇〇萬圓
其他	一、〇〇〇萬圓

支拂不能

孟買紡績會社 財界에큰衝動

【電通뭄베이十日發】 十二工場과總數二萬의工場員을갓고當地最大의紡績會社『기린보이』이부라힘、산조』는遂히支拂不能에陷하야十三日부터 操業停止로決定한外에닭에뭄베이財界에大衝動을與하엿고뭄베이最大의銀行인내슌날씨티印度銀行 中央銀行은預金者가殺到하야 僅히一時間에預金拂出이三千萬圓比(日貨三十七百萬圓)의巨額이다

朝、日直通電話 區域編入키를 群山局서陳情

【商通群山電話】 日本、朝鮮間直通電話 始에依하야 兩者의經濟的交涉은 益益其濃度를增加하엿는데 米의移出關係에잇서 日本과의貿易事情이特히密接한群山은 直通區域外에있서 當業者의不便이不少함으로써 最近區域으로編入하라는소래가漸次高하지는데鑑하야 群山局에서는 通話區域編入陳情을當局에提出하엿다

國營論擡頭와 中島商相意圖

取引所側의提案을 기대려更生策考慮

【商通東京電話】 中島商相은 米穀取引所國營은 理論的으로는可能性은 업스나 取引所와關係者의 希望에는 當面한區로서 考慮안다고 十一日의 米穀取引所 特別委員의 陳情에 答하엿다 商相의意嚮으로는 現下의 統制經濟의 時代에잇서서는 投機的을 脫却한 實買仲介機關으로서 存在할밧게업다고보는 模樣으로 取引所의 更生策은 取引所에서 具體案을 提出하면 이것을考慮하라고方針을決定한模樣이다

貿易促進展覽會 十四日부터開催

出品一千八百点

京城商工會議所主催朝鮮貿易促進展은 十四日부터十日間商工獎勵館에서 開催될터인데十二日外지의出品點數는如左하나

滿洲에서購入 四百七十五點

日本出品 百五十一點

朝鮮內出品 一千百七十九點

計 一千八百五點

朝鮮內道別出品

各地別	點數	出品者數
慶南	一五四	四八
慶北	五一	二〇
全南	九三	二八
全北	二八	六
忠南	四	四
忠北	三九	四
京城	一〇八	五六
黃海	二八	一七
江原	一八	一
平南	八四	二八
平北	一九	九
咸南	三七	一二
咸北	四四	三

工業協會理事會

朝鮮工業協會에서는十四日午後二時부터 理事會를 開하고左記件을協議한다고

一、滿洲東亞産業協會의 提唱에係한 日滿貿易懇談會에關한件

一、無檢査通關에 關한件

一、協會英文呼稱에關한件

株式現物時勢

十一月現在朝鮮內株式現物市勢如左하다(山名商店調査)

○銀行信託株

種類	一株拂込(圓)	配當(割)	最近時價(圓)
朝鮮銀行	一〇〇、〇	[illegible]	[illegible]
同 新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朝鮮殖産銀行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同 新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朝鮮貯蓄銀行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朝鮮商業銀行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同一新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同二新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同三新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漢城銀行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同 新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東一銀行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同 新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同二新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海東銀行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釜山商業銀行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同 新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湖南銀行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慶一銀行	[illegible]	[illegible]	無
慶尙合同銀行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朝鮮信託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朝鮮土地信託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南朝鮮信託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夕刊後의市況

朝取短期

	後引	高價	低價
朝取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朝鮮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鐘紡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大新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東新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日産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同新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拓新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東京短期

	後引	高價	低價
東新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鐘新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大新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大阪短期

	後引	高價	低價
東新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鐘新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大新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大阪短期氣配

大新	[illegible]	[illegible]
鐘新	[illegible]	[illegible]
日産	[illegible]	不變
東新	[illegible]	[illegible]

橫濱生糸後引

當	[illegible]
先	[illegible]

○鐵道運輸株

種類	拂込(圓)	配當(割)	時價(圓)
南滿洲鐵道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同 新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朝鮮鐵道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同一新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同二新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同三新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同四新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南鮮京鐵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金剛山電氣鐵道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同 新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南朝鮮鐵道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朝鮮京東鐵道	三、五	[illegible]	[illegible]

○紡織株

種類	拂込(圓)	配當(割)	時價(圓)
朝鮮紡織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滿蒙毛織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京城紡織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朝鮮製絲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朝鮮製綿	[illegible]	越	[illegible]
朝鮮蠶絲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全南摺是製絲	[illegible]	無	[illegible]
忠南製絲	[illegible]	越	[illegible]

○電氣瓦斯株

種類	拂込(圓)	配當(割)	時價(圓)
京城電氣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同 新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朝鮮電氣興業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朝鮮瓦斯電氣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同 新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元山水電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同 新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南朝鮮水力電氣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大田電氣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同 新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朝鮮送電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新義州電氣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同 新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木浦電燈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同 新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鎭南浦電氣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麗水電氣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開城電氣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同 新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大興電氣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同 新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西鮮電氣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北鮮電力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取引所、金融株

種類	拂込(圓)	配當(割)	時價(圓)
朝鮮取引所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同 新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安東取引所	[illegible]	無	[illegible]
朝鮮證券金融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釜山無盡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朝鮮無盡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共濟無盡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仁川無盡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福德無盡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興業無盡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京城金融	[illegible]	無	[illegible]
大邱金融	[illegible]	無	[illegible]
朝鮮金融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平壤興業	[illegible]	無	[illegible]
×大邱穀物	[illegible]	無	[illegible]

○倉庫、運輸株

種類	拂込(圓)	配當(割)	時價(圓)
×朝鮮倉庫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同 新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元山倉庫	[illegible]	越	[illegible]
馬山倉庫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淸津倉庫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朝鮮運送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水産株

種類	拂込(圓)	配當(割)	時價(圓)
京城水産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同 新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鎭海水産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釜山水産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同 新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北鮮水産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仁川水産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朝鮮海藻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元山水産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平壤魚市場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同 新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旭魚市場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全北水産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鎭南浦水産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統營海産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全南水産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諸株

種類	拂込(圓)	配當(割)	時價(圓)
京城演藝館	[illegible]	越	[illegible]
×月尾島遊園	[illegible]	越	[illegible]
朝鮮自動車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朝鮮書籍印刷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京城肥料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奉天製藥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元山海水浴	[illegible]	越	[illegible]
朝鮮物産	[illegible]	越	[illegible]
京城鍊瓦	[illegible]	越	[illegible]
京仁バス	[illegible]	越	[illegible]
中央物産	[illegible]	無	[illegible]
京城鹽業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東洋塗料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共榮木管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窯業、皮革、鑛山、畜産株

種類	拂込(圓)	配當(割)	時價(圓)
新義州窯業	[illegible]	無	[illegible]
日本硝子(?)陶器	[illegible]	無	[illegible]
東洋畜産	[illegible]	無	[illegible]
朝鮮皮革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大田皮革	[illegible]	無	[illegible]
全北畜産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京城畜産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朝鮮無煙炭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朝鮮中央鑛業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義州鑛業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釀造、諸製造 工業株

種類	拂込(圓)	配當(割)	時價(圓)
朝鮮美術品製作	[illegible]	無	[illegible]
朝鮮銃砲火藥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朝鮮鑄寸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京城天然氷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朝鮮天然氷	[illegible]	無	[illegible]
龍山工作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同 優先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朝日醸造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朝鮮麥酒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朝鮮精米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朝南銃砲火藥	[illegible]	越	[illegible]

○土地、拓殖株

種類	拂込(圓)	配當(割)	時價(圓)
東洋拓殖	[illegible]	越	[illegible]
同 新	[illegible]	越	[illegible]
不二興業	[illegible]	越	[illegible]
朝鮮興業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同 新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元山興業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朝鮮土地改良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鮮滿拓殖	[illegible]	無	[illegible]

○保險、汽船、煙草株

種類	拂込(圓)	配當(割)	時價(圓)
朝鮮生命保險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朝鮮火災保險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朝鮮郵船	[illegible]	越	[illegible]
朝鮮汽船	[illegible]	無	[illegible]
仁川汽船	[illegible]	無	[illegible]
東亞煙草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同 新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平南의水産狀況 (五)

金晚炯

九、漁民의遭難狀況

平南海岸에는 漢川 淸川 貴林等 湖 海鴨 西海 二鴨 七個漁業組合이잇고 其外에도 個人關係의漁業者가잇다 組合乃至個人經營의漁民들은 茫茫한大海中에서 一隻의漁船을가지고 이곳에서衣食住等의凡節을하는것은勿論 唯一한作業場으로도代用하고잇는 漁民들은 數週間 或은數個月間을 全然陸地라고는 구경도못하고 오직晝間에는 푸른하날과 푸른물결을, 그리구夜間에는반작거리는 별들을동모삼아 지나게되니 그러자니 陸地가그리워질것은 想像할수잇다 그러나漁獲高나富豐하다면 그러한 적막함은 完全히이저버리고作業에만 熱中하게되는터이어서 漁民들은도리허 平凡하게지나는便이다

그래서自然히 氣長해지고 忍耐性이 만타고볼수 잇는것은 海上生活을하는 漁民들이나 漁民을 戰慄케하는 大自然의暴威가잇스니 그것은 暴風雨이다 今年七月中에도 例年에보지못하든 그야말로 未曾有의 大暴風雨로 因하여 海上에出漁中이든 漁船三百餘隻이行方不明이되여 大騷動을 한것은 아직도 記憶에 새롭거니와 暴風雨만맛나면 돗은 불어지고 노는 석거저 狂亂하는怒濤에 밀니어 定處업시 닭아나다가 暗礁가튼곳에 衝突하면 船舶은 散散히破碎되고船員은 小孤魂이되고 만은것이다 이래서 年年히西海岸에서도 만흔遭難漁船과 遭難漁民이만흔터이다 엇지엇지하여 天幸으로 無人島에나따러 漂流되어 「로빈손크루소」와가튼 生活을하다가 通行하는 漁船에게 救助되는例도 非一非再하나 옛날에는 漁村에는 裕福하다는評判을듯던漁民이 漁船과 漁具를 一朝一夕에 일허버리고赤手空拳으로 還古鄕하는 漁民의 눈에서는自然히 落淚하는場面도 자조不見한다고한다 이보다도 遭難을當햇다는消息이傳해지면 陸上에남어잇는家族들이 全部海岸에 모혀들어 바다를바라보면서 울고불고大騷動을하다가 요행살어서돌아오면 깃붐에넘쳐거니와 돌아오지안으면 家族들의哀痛하는 모양은 形容할수업다 그래서 家族들은 집에돌아가 海中孤魂이되여든父兄이나 子息 或은男便을爲하여祭壇을못고 祭祀를 지낸다 그러다가잇다금 溺死한줄알고 祭祀까지지내든家族이 이차저와 痛哭하는祭祀집은깃붐에넘치는 우습밧으로變하는 일도잇다 『그린센스』도 자조發生된다고한다 그러나漁民의危險은海上에出漁한 民衆이아니다 三年前의事實이다 江西郡赤星面海岸에서조개잡이를하든小兒가 急작스럽게 몰녀드는 潮水로 因하여 二十八名의漁民이沒死한例도잇서 엇더한 家庭에서는 一時에 屍體가 넷식이나생긴 言語를斷하는 慘劇까지잇다 何如튼漁民의 生活은 絕對로 危險이附隨하는職業이라안흘수업스니 船人의입에서흘너나오는뱃노래기의歌詞를 吟味할수가잇다

▲遭難狀況 다음과갓다

▲遭難件數 十六件 (昭和七年中)

船舶破碎 十四隻

溺死者 十七名

行方不明者 三名

損害額 二萬圓

一〇、漁民의「로만스」

누구든지 西海岸에만 가면海風에 얼골이 黑色으로 變한 靑春男女들의 「조개잡이」하는 光景이 눈에뛰일것이다 또한 西海岸地方 固有의民謠를들으면

「엘모되날들은 조개는잡아 엇지리고 가는님잡아서청드리자

×

쓰고달고 된장먹지 갈거이 산양은왜갓노

×

연분홍치고리남갑사소매 언덕가튼 고흔처보소

×

녹두는갈어서 청포생에 파드군하고엿자잘하외다

×

커더를먹고엿나나 재무든손으로날오라누나

×

청무엇게실아리라레 바람만불어도날속이누나

以上의 民謠에는 漁村의 로만스를 何如튼純眞과 充分히表現할수잇다 로 싸워가는 漁村의靑春男女는 互相扶助의 美風이잇스며 海邊에서 「조개잡이」 「갈래잡」 이等에 從事하면서 接近할期會가만흔만큼 아기자기한 「로맨스」는 만히일어난다(終)

林巨正傳 (200)

洪碧初 作

熊超 畫

배돌석이 二의八

내외간에 탐탁하지는 못하나마 그럭저럭 살어가는중에 반년이 지나서 구시월 기픈 가을이되엇네 김도사집 추수가 벼스백 조히되는때라 도조쌔리가 날마다 들어오는데 마질은 내가 혼자하고 말모은 목자처서방과 돌이 반분하야네 나혼자 차지하야 조흘것을 남에게 논하줄때라 업지만 전에도 그런케햇다기에 경위를 못지안코 그대루 차얏네 도조를 흥사해지 녜악하게 바더드리엇더니 밀던 도조 채줄는 고사하고 묵으빗 추심까지 니를시켜서 나는 아구다툼과 주먹다짐을 하루도 몃번식할때가 만핫네 가을부터 안의가 일이 밧브다고 기집이 밤중까지 안서안나오는때가 종종잇더니 가을일들이 못난뒤에는 도리혀 심하야서 초저녁에 나와잇다가도 나잡는틈에 다시 안에

「무슨소린지 나 몰으겟소 알겐」

「나는 바지저구리만다니는데처 그얼 집작한단말이요」

「날부터 눈치를 다알엇네」

「굴써 무어요」

「목 말은둘어야 속이 시원하겟나」

「공연이 사람을 의심하지마오」

「의심을의심은 벌서 지나갓네」

「가치살기가 실커든 그저 실라고하오」

「자네가 나를 실타니까 걱정이야」

「누 실다구 말합뎃가」

「말루하면 숫제나쎼 전에업시 왜 공연활돋실이요」

「전에는 참엇지 참을것두한 이야서」

「나를 살어먹고십거든 잡어먹우 말니로하오」

들어가서 닭까지 울리고나오는때가 더러잇섯네 이런때는 기집의입에서

「언케 왜섯소 느젓스니 어서자고 내일 일질 넘어납시다」

「일에부택저서 사람이 끈해죽겟소」

이런말이 나오는데 말소리에 칭이 똑똑열엇네 어느날 나는 내가 빗추심하러 나가 몰아다니다가 술사잔을 어더먹고 들어와서 저녁밥을 먹고 눈지마는지하고 쓸어지며 곳잠이들엇다가 밤중을 잠이쌔어서 여플 더듬어보니 기집이업데그려 달는때가트면 엽맛에나다시고 다시잘것인데 그날밤은 기집이 여폐업수까닭으로도 잠이 잘오지아니하야 몸을 이리뒤척 저리뒤척하며 가진 몸슬생각을 다하는중에 방문이 부시시 열리더니 기집이 살그머니 차리에와서눕는데 부시럭소리도 별로업시 누은채는 옷님은채 눕는모양이데

「잠이 왜섯소」

「또 안에 들어갓섯나」

「어되가잇섯나 안이가 사람인가」

「사랑에를 내가 왜 가잇다말이요」

「고만두게 나두 다 짐작차네 언케든지 내눈에 틀키는날은 조치못할색니 그리어데」

「왜 내가 사람먹는사람인가」

기집이 흑작흘작 울기시작하야 나는 달라서 다리고자고 이튼날 침에 안에 들어가서 아씨를보고 「요새 안에 일이방분너까」 하고 물으니 아씨가 「왜」하고 나의뭇는말을 괴상히 너기데

「소인의 기집을 밤일을 시키시니까 말슴이에요」

「언케 밤일을 시켯단 말이야」

「우선 어제밤에두 소인의기집이 밤중이지나서 나왓습니다」

아씨는 눈찝의 쌍크래지고 말을못하다가

「잘알엇다 이후에는 내가 밤에 일을시키라면 너를 불러서 드러보내라고 니기집에 들어오는데는 다른볼 보질러노하도조타 쇠방노릇하는데 그만일을 못하게하라」

기집이 듯는데 이런말을하는 데 나는

「네 알어하겟습니다」

하고 기집을 한번 흘겨보고 나왓네 그날저녁에 흐나씨가 집을 방망이도 사다듬이 노코 그날밤부터 약가를 아더지사랑에 내보내재우는데 수방님은 물씬소리도 못한모양이데